

사회복무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s of Social Service Agent

이경희*, 박정윤**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Kyung-hee Lee(lkh970527@naver.com)*, Jung-yoone Park(pjy4838@cau.ac.kr)**

요약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서울지역 소재지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470부를 배부하여 427부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아분화수준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복무 부적응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통계처리는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의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은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복무 부적응행동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체로 복무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복무 부적응행동의 모든 하위변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위축에는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가족퇴행 분화수준이 부적응행동을 미쳤고, 정서적 단절, 학력, 복무기간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에는 가족퇴행 분화수준, 분노조절, 인지 대 정서가 부적응행동을 주었고, 자아통합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격성에는 가족퇴행과 인지 대 정서의 분화수준, 분노조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부적응행동을 미쳤다. 강박성에는 가족퇴행, 낙관적 태도, 인지 대 정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 복무기간이 부적응행동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자아분화 | 자아탄력성 | 사회복무요원 | 복무 부적응행동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s of Social Service Agent. To achieve this, we chose these research questions.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data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470 questionnaires to Social Service Agent serving in service organizations located in Seoul. Four hundred twenty-seven survey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Agents were shown to generally adjust well to service, as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were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while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 was slightly lower than the median. Second, when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 were studied, all value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affected all lower factors of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 with significance. For social withdrawal, the effectiv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 optimistic attitude, and the degree of family regress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and emotional divorce, education level, and term of servi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The degree of family regression, anger management, and cognitive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hyperactivity while self unity had a positive one. Family regression, cognitive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anger management, and family's economic level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on. Family regression, optimistic attitude, cognitive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family's economic level and term of servic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obsession and compulsion.

■ keyword : | Self-differentiation | Ego-resilience |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 of Social Service Agent |

I. 서론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원칙에 따라 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역병 소요를 충당하고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복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이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1]. 사회복무요원은 전국에 총 52,122명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7,000여 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복무자는 전체인원의 36.4%인 18,949명이고, 보건·의료분야에 5.5%인 2,886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교육·문화 분야에 6.3%인 3,296명이, 환경·안전 분야에 12.0%인 6,250명이, 행정 분야에 39.5%인 20,579명이 복무중이다[2].

2008년부터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사회복무요원들 대상으로 복무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병무청에서 소양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병역법 위반 및 부적응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복무 중 강력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¹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각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무과정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초래하거나,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 어려운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무부적합자로 소집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무 부적응으로 소집 해제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700여명에 이르렀다.² 이는 군장병들의 부적응 연구에서[4]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군대의 엄격한 위계질서,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힌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은 생애 발달단계 상 청소년후기와 성인초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 설정, 사회적 적응, 진로결정 및 취업 준비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으나[5], 최근의 이 시기의 성인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이어서 이 시기에 성인자녀의 생활전반에 가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6]. 최근 부모의 양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인초기의 자녀들은 부모의 과보호, 문제해결 및 충동조절 능력 등의 부족으로 조직화된 체제 내에서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조직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며, 가족·친구들과 헤어져 통제된 생활에 낯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획일적인 일과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복무생활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다[7]. 복무기관은 특수한 환경여건인 만큼 소속된 구성원들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관련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비슷한 환경인 군장병들 대상으로 한 군복무 부적응 관련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사회복무요원제도 도입초기에 본 제도 운용 방안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2008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치 확대되면서는 사회복지담당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배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운영 실태, 사회복무요원들의 교육 및 직무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복무기간이 짧은 소양교육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대상 면에서 제한적이었고, 연구내용 또한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양성 및 행정적 관리에 치중되어[8-10], 사회복무요원들의 적응이나 그와 관련된 개인변인들을 밝히는 내용들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적응과 관련된 개인심리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변인은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분화란 개성화된 정도를 말하며 자아분화

1 2015. 12. 17. 중부일보 '고삐없는 사회복무요원 폭력·성범죄 등 강력 범죄 매년 증가'

2 2016. 9. 25. 연합뉴스 '현역병 의병전역 5명 중 4명이 정신질환자'

가 잘 이루어지면 정서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11]. 또한 자아탄력성이란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적 상황 조건하에서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특성을 말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응력이 높고 대인관계가 효율적이고 원만하다[12][13].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겪고 역기능적 행동을 보이고[14][15] 분노표현을 많이 하며[16],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의미있는 지속적인 관계능력이 결핍되어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하기 어렵고[17], 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편집증 등 부적응 증상이나 음주·흡연·싸움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3].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에 더 많이 동참하고, 적응 유연성이 부족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며[18]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등 대학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19]. 이와 같이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은 부적응 증상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전에 사회복지요원의 부적응을 예측하고, 자아분화 및 자아탄력성 수준을 고려한 상담·복무관리로 사회복지요원들의 복무 적응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요원들의 복무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보고자 개인심리변인 중 대표적인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복무 부적응행동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사회복지요원의 자아분화, 자아탄력성, 복무 부적응행동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 2) 사회복지요원의 자아분화, 자아탄력성, 복무 부적응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 3) 사회복지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나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이며, 사회복지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 부대에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4주)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소집 수료 후 복무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복무형태는 현역병과 달리 자가 숙식과 출·퇴근 근무를 하며 복무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대가 아닌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종사자 직원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 그러면서도 복무기관의 비종사자로도 볼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1]. 그래서 현역병이 군인이라는 동일한 지위의 군대조직에서 상위 직급자로부터 업무 지시 등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요원은 복무기관의 일반 직원으로부터 실제적인 관리를 받으며 이들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용도 및 만족도도 낮을 수 있고, 일반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사회복지요원이 복무 분야는 사회복지 업무, 보건·의료업무, 교육·문화업무, 환경·안전업무, 행정업무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20].

사회복지요원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인서비스 업무와 서비스를 위한 행정·사무·관리 등 간접 지원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21]. 첫째, 대인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타인이해, 인내심과 같은 자기조절,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등의 역량이 중요하고, 사람을 직접 대면할 때 필요한 미소, 친절, 소통, 돌봄, 믿음, 배려, 인내와 같은 감정노동에 필요한 역량이 요구된다[22]. 둘째, 간접지원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담당 업무 및 작업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21].

비록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업무를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병역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다양한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조직에 적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적응행동 관련 선행연구 고찰

부적응 행동은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화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것이며[7]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반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23],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켜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24].

사회복무요원의 부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어, 업무 수행 시 일반인과는 달리 군에서처럼 통제와 간섭을 받고 강제적·수직적 인간관계 안에서 적응하여야 하며, 군 장병과 비슷한 연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군 장병의 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군 장병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위 계급(상병, 병장)보다는 하위 계급(이등병, 일병)이 군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고[25].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과음 횟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아주 많거나 적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군대에서 부적응을 하였다[26].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아 내·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장병일수록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27]. 또한 단체생활과 억압된 자유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같은 각종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되면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반면 자아탄력성이 군 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29].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변인들이 무엇이고, 군 장병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적응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적응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3.1 인구사회학적 변인

선행연구들이 군 장병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군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군 생활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력, 연령, 계급, 복무기간, 가족변인 등이 있었다[30-32].

학력이 대학(전문대)졸업 이상,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재학 중인 집단 순으로 군 생활 적응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고[31]. 고졸 집단이 대학 재학 중, 대졸자 집단보다 군생활 부적응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으며[32], 학력에 따른 군대적응도는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어[30][33] 연구결과들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을수록 군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계급이 낮을수록 군 생활에 부적응한다는 연구와[30]. 계급이 높을수록 군생활 적응도가 낮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32][34].

가정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군 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28].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군 조직 환경에 가장 불만족이었고, 경제적 수준이 중간에 속하는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30]. 한편 병사의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른 군생활 부적응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34]. 군 부적응에 대한 가족의 경제상황의 영향력이 일관성이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족변인과 관련하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양친이 생존해 있거나 한 분만 생존해 있는 경우보다 군대적응도가 낮았다[30]. 반면 종교의 유무는 군대부적응도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상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복무기간, 계급, 학력, 가정형편, 건강 등은 병사들의 군생활 부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연구결과들이 상이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적응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개인심리적 변인

(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지적체계가 정서체계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35].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자율성이 부족하여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고수하지 못하고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세계의 영향에 쉽게 휘말리고 사고, 감정,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의 긴장도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36].

자아분화는 대학생할 적응과도 정적상관이 있고[37],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공군 병사들의 자아분화 수준과 친밀감이 각각 군 생활 적응과 정적 영향을 미쳤고[39].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40].

자아분화는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적응과는 관련이 있었는데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억제적 대처방식, 반응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심리적 부적응이 높아졌고[41][42]. 중·고등학생의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증,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공포불안, 정신증 등 부적응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고, 무단결석 등 문제행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 외에도 자아분화는 우울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43],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과 신체증상을 경험하며 자아수준이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44] 연구들도 있었다. 이렇듯 자아분화는 대상에 상관없이 대인관계 및 가정·학교 등 여러 상황에서의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회복지요원의 부적응에도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의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사회·개인 영역과 관련한 문제해결에서의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고 Block&Block은 말하였다[29].

사회복무요원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적 상황 및 환경의 역경의 조건하에서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특성이 바로 자아탄력성이고[12][13], 자아탄력성이 적응 및 부적응 행동, 심리적 부적응, 문제해결력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병사의 자아탄력성은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46]. 특히 흥미와 관심이 많고,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군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자아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내·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고[47].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에는 자신감, 낙관적 태도 순으로,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에는 가족퇴행, 자아통합, 인지 대 정서, 가족투사 순으로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자아탄력성이 낮은 대학생은 양가적인 갈등 및 대인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48]. 이외에도 부적응 사고 및 적대감·공격성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며[49],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낙관성, 감정조절, 활력성, 대인관계 모두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다[45]는 연구들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자아탄력성이 환경에의 적응 뿐만 아니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심리적·정서적·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행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요원은 변화된 복무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능력이 있어야 하며, 업무 상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적절한 정서 표현과 갈등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요원의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복무 부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서울시 소재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사회복무요원 25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내용 이해의 용이성, 문항 수 및 소요시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해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복무분야를 고려하여 실시하였고, 복무지도관이 각 복무기관에 방문하거나 일부 복무기관 담당자를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시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470부를 배부·수거하였고 이 가운데 답안이 누락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43부를 제외한 427부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독립변인인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종속변인인 복무 부적응행동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일부 내용은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측정도구	하위변인	Cronbach's α
자아분화	인지 대 정서	.813
	자 아 통 합	.686
	가 족 투 사	.874
	정 서 적 단 절	.793
	가 족 퇴 행	.917
	전 체	.899
자아탄력성	자신감	.917
	대인관계 효율성	.904
	낙 관 적 태 도	.871
	분 노 조 절	.808
	전 체	.951

부적응행동	사 회 적 위 축	.914
	과 잉 행 동	.808
	공 격 성	.928
	강 박 성	.873
	전 체	.931

2.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령, 복무분야, 복무기간,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2.2 자아분화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4]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변인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대 정서’는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 자기감정의 통제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아통합’은 진아(眞我)의 발달 정도는 측정하며, 개인이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투사’는 투사를 하기 쉬운 부모의 특징을 묻는 문항과 과거부터 부모가 보였던 근심과 현재 상태의 일치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서적 단절’은 부모에 대한 반항, 부모애착에 대한 강한 부정이나 고립, 가출의 욕구 등을 통한 정서적 거리, 위장된 독립성 등을 측정한다. ‘가족퇴행’은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구성원이 대처해 나가는 방법 및 갈등해결 방법, 제삼자와의 삼각화 경향, 역기능적이고 퇴행적인 행동 등을 측정한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가하는 4점 Likert 방식으로 하위변인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분화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지 대 정서 .813, 자아통합 .686, 가족투사 .874, 정서적 단절 .793, 가족퇴행 .917 이었고, 전체신뢰도는 .89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현진(1996)이 번안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Block(1961, 1978)이 개발한 이후 KloHenn(1996)의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50]. 총 29문항으로 하위변인은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타인과 있을 때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 낼 수 있다는 생각 등을 측정하고, ‘대인관계 효율성’은 낯선 사람과의 관계형성 능력과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 여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적 태도’는 삶에 대한 의미 부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및 생각 등을 측정하고, ‘분노조절’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 등을 측정한다.

척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가하는 4점 Likert 방식으로 하위변인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신감 .917, 대인관계 효율성 .904, 낙관적 태도 .871, 분노조절 .808 이었고, 전체신뢰도는 .95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복무 부적응행동

복무부적응행동 측정도구로서는 Achenbach(1978) 제작한 아동행동목록과 Quay(1972)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행동 질문지를 참고로 이선옥[51]이 사용한 부적응행동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20문항으로 하위변인은 사회적 위축, 과잉행동, 공격성, 강박성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위축’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쉽게 당황하거나 잘못할까봐 겁부터 내는 행동 등을 측정하며, ‘과잉행동’은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부산하며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행동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격성’은 사소한 일로도 타인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여부 및 위협·물건던지기 등 화가 났을 때의 행동 특징 등을 측정한다. ‘강박성’은 의심과 불안의 정도, 타

인에 대한 의식과 경쟁심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무 적응행동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가하는 5점 Likert 방식으로 하위변인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행동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회적 위축 .914, 과잉행동 .808, 공격성 .928, 강박성 .873 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3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비율은 20-23세(79.6%), 24-26세(14.5%), 27세 이상(5.9%)이었고, 응답자의 복무분야 비율은 사회복지(28.8%), 교육문화(21.3%), 행정(20.1%), 환경안전(15.7%), 보건의료(14.1%) 순이었다. 복무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6개월에서 1년’의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1년 6개월’ 29.0%, ‘6개월 미만’ 20.2%, ‘1년 6개월 이상’ 15.2%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전문대) 휴학·중퇴’ 응답자가 67.0%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 20.1%,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12.9%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의 경우가 17.8%, ‘상’의 경우가 15.0%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연령	20 - 23 세	340	79.6
	24 - 26세	62	14.5
	27 세 이 상	25	5.9
복무 분야	사 회 복 지	123	28.8
	보 건 의 료	60	14.1
	교 육 문 화	91	21.3
	환 경 안 전	67	15.7
	행 정	86	20.1
복무 기간	3개월 미만	45	10.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1	9.6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82	19.2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70	16.4
	12개월 이상~15개월 미만	67	15.7
	15개월 이상~18개월 미만	57	13.3
학력	18개월 이상~21개월 미만	30	7.0
	21개월 이상	35	8.2
	고졸이하	86	20.1
가정의 경제적 수준	대학휴학 또는 중퇴	286	67.0
	대학졸업	55	12.9
	상	64	15.0
	중	287	67.2
	하	76	17.8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변인분석, 빈도분석, 일원 변량분석 및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3.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변인과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부적응 행동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탄력성, 복무 부적응 행동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자아분화의 전체 평균은 2.96점(SD=.37)으로 4점 만점 중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무요원의 자아분화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변인의 평균값은 가족투사 3.12점(SD=.60), 가족퇴행 3.12점(SD=.60), 인지 대 정서 3.08점(SD=.55), 자아통합 2.76점(SD=.45), 정서적 단절 2.74점(SD=.66)순으로 나타났고, 모두 중간점수보다는 높았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불안이나 분노를 가족에게 투사하지 않고 개인화가 잘 일어나고 있고, 가족갈등이 발생할 때 서로 상의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편이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며 밀고 나가는 면이 있고, 가족과의 정서적 접촉을 피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편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전체 평균은 2.85점(SD=.56)으로 4점 만점 중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사회복무요원들의 자아탄력성은 보통 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위변인별 평균값은 분노 조절 2.96점(SD=.84), 자신감 2.87점(SD=.58), 낙관적 태도 2.86점(SD=.65), 대인관계 효율성 2.70점(SD=.71) 순으로 나타났고, 모두 중간점수보다는 높았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체로 분노감을 조절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감을 갖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는 편이고, 삶과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복무 부적응행동 평균은 2.42점(SD=.82)으로 5점 만점 중 중간점수보다는 약간 낮아,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부적응행동을 보통 수준보다 낮다고 할 수 해석할 수 있다. 하위변인별 평균값은 강박성 2.88점(SD=1.05), 사회적 위축 2.61점(SD=1.06), 과잉행동 2.50점(SD=.92), 공격성 1.69점(SD=1.02) 순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강박성 및 사회적 위축 등 심리 내적인 문제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과잉행동이나 공격성 등 외적인 행동 문제로 복무기관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관련변인의 전반적 경향성

변인	하위변인	점수범위	M(SD)
자아분화	인지 대 정서	1.00~4.00	3.08(.55)
	자아 통합	1.80~4.00	2.76(.45)
	가족 투사	1.00~4.00	3.12(.63)
	정서적 단절	1.00~4.00	2.74(.66)
	가족 퇴행	1.00~4.00	3.12(.60)
	전체	1.60~3.92	2.96(.37)
자아탄력성	자신감	1.33~4.00	2.87(.58)
	대인관계 효율성	1.00~4.00	2.70(.71)
	낙관적 태도	1.14~4.00	2.86(.65)
	분노조절	1.00~4.00	2.96(.84)
	전체	1.12~3.94	2.85(.56)
복무 부적응 행동	사회적 위축	1.00~5.00	2.61(1.06)
	과잉행동	1.00~5.00	2.50(.92)
	공격성	1.00~5.00	1.69(1.02)
	강박성	1.00~5.00	2.88(1.05)
	전체	1.00~5.00	2.42(.82)

2.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복무 부적응행동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복무 부적응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복무 부적응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아분화는 하위변인 중 자아통합을 제외하고, 하위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자아탄력성의 각 하위변인들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복무 부적응행동의 각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만,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 자아통합은 자아탄력성 하위변인 중 분노조절과 부적 상관을, 복무 부적응행동 하위변인 중 과잉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외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자아탄력성 또한 하위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복무 부적응행동의 각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만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대인관계 효율성만이 복무 부적응행동의 하위변인 중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효율성($r=-.653, p<.01$), 자신감($r=-.632, p<.01$), 낙관적 태도($r=-.596, p<.01$), 가족투

사($r=-.438, p<.01$), 가족퇴행($r=-.401, p<.01$), 인지 대 정서($r=-.308, p<.01$), 분노조절($r=-.281, p<.01$), 정서적 단절($r=-.205, p<.01$)순으로 부적 상관이 높았다. 즉 조사대상자의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자신감이 낮을수록, 낙관적 태도가 적을수록, 가족투사·가족퇴행·인지 대 정서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할수록 사회적 위축행동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과잉행동은 자신감($r=-.458, p<.01$), 인지 대 정서($r=-.432, p<.01$), 분노조절($r=-.421, p<.01$), 낙관적 태도($r=-.411, p<.01$), 가족투사($r=-.384, p<.01$), 가족퇴행($r=-.349, p<.01$), 대인관계 효율성($r=-.309, p<.01$), 정서적 단절($r=-.203, p<.01$)순으로 부적 상관이 높았고, 자아통합($r=.134, p<.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자신감이 낮을수록, 인지 대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할수록, 낙관적 태도가 적을수록, 가족투사 및 가족퇴행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정서적 단절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복무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인지 대 정서	자아 통합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	자신감	대인 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 조절	사회적 위축	과잉 행동	공격성	강박성
인지 대 정서	1												
자아 분화		1											
자아 분화			1										
자아 분화				1									
자아 분화					1								
자아 탄력성						1							
자아 탄력성							1						
자아 탄력성								1					
부적응 행동									1				
부적응 행동										1			
부적응 행동											1		
부적응 행동												1	

** $p<.01$, * $p<.05$

공격성은 가족퇴행($r=-.370, p<0.1$), 인지 대 정서($r=-.330, p<0.1$), 분노조절($r=-.265, p<0.1$), 가족투사($r=-.239, p<0.1$), 정서적 단절($r=-.219, p<0.1$), 자신감($r=-.163, p<0.1$), 낙관적 태도($r=-.133, p<0.1$)순으로 부적 상관이 높았다. 즉 조사대상자의 인지 대 정서 및 가족퇴행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할수록, 가족투사 및 정서적 단절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감이 낮을수록, 낙관적 태도가 적을수록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강박성은 자신감($r=-.503, p<0.1$), 낙관적 태도($r=-.486, p<0.1$), 대인관계 효율성($r=-.387, p<0.1$), 가족퇴행($r=-.366, p<0.1$), 인지 대 정서($r=-.364, p<0.1$), 분노조절($r=-.354, p<0.1$), 가족투사($r=-.329, p<0.1$), 정서적 단절($r=-.202, p<0.1$)순으로 부적 상관이 높았다. 즉, 조사대상자가 자신감이 낮을수록, 낙관적 태도가 적을수록,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가족퇴행·인지 대 정서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할수록, 가족투사·정서적 단절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강박성 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중다회귀 분석의 기본가정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공선성 진단 결과, Durbin-Watson 계수의 범위는 1.800~2.081로 2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값이 .196~.985로 0.1보다 컸고, VIF의 값이 자아탄력성의 자신감(VIF 값 5.303~5.110)과 낙관적 태도(VIF 값 3.433~3.863)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의 하위변인들의 VIF 값은 1.015~2.187으로 VIF 값이 모두 10이하이므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Model 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설명력은 4.9%로 미미하였으며, 유의한 변인은 없었다. Model I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분화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6.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4.939, p<0.001$). 가족퇴행($\beta=-.278, p<0.001$), 가족투사($\beta=-.240, p<0.001$), 인지 대 정서($\beta=-.176, p<0.001$)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조사대상자는 가족위기 상황에서 서로 상의하고 책임을 지기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며 다투고, 어떤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사고와 정서를 구별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등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부적응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Model II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설명력은 51.1%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48.424, p<0.001$). Model II에 비해 사회적 위축은 자아분화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더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한 변인은 대인관계 효율성($\beta=-.424, p<0.001$), 낙관적 태도($\beta=-.247, p<0.001$), 자신감($\beta=-.163, p<0.05$), 복무기간($\beta=.098, p<0.1$)이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는 등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Model IV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54.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34.529, p<0.001$). 유의한 하위변인은 대인관계 효율성($\beta=-.432, p<0.001$), 낙관적 태도($\beta=-.215, p<0.1$), 가족퇴행($\beta=-.195, p<0.001$), 정서적 단절($\beta=.148, p<0.1$), 학력($\beta=.098, p<0.05$), 복무기간($\beta=.076, p<0.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가 윗사람 또는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으

며,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많이 느껴지는 등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복무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위축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β	β
인구 사회학 적 변인	연령	.003	.017	-.009	.003
	복무분야	.074	.030	.046	.032
	복무기간	-.031	-.051	.098**	.076*
	학력	-.071	.084	.026	.098*
	경제적 수준	.181	.053	-.003	-.014
자아 분화	인지 대 정서		-.176***		-.106
	자아통합		-.060		-.045
	가족투사		-.240***		.014
	정서적 단절		.067		.148**
	가족퇴행		-.278***		-.195***
자아 탄력성	자신감			-.163*	-.149
	대인관계 효율성			-.424***	-.432***
	낙관적 태도			-.247***	-.215**
	분노조절			.044	.095
Constant(상수)		2,235	6,052	5,740	6,344
R ²		.049	.264	.511	.540
ad R ²		.038	.247	.500	.524
F값		4.359**	14.939***	48.424***	34.529***

***p<.001, **p<.01, *p<.05

2)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 행동의 하위변인 중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Model 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2%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2.811, p<.05) 유의한 하위변인은 없었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분화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8.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16.288, p<.001) 유의한 하위변인은 인지 대 정서(β =-.299, p<.001), 가족퇴행(β =-.218, p<.001), 가족투사(β =-.160, p<.01)순으로 과잉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사고와 감정을 잘 구별하지 못하여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등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주의집중을 못하고 부산하게 과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자아통합(β =.092, p<.05)은 과잉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예의와 겸손을 중시하는 정서적 사회분위기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통합 수준이 높아 자신의 의견을 중시하고 자기주장을 관철하려고 할수록 과잉행동으로 비쳐지고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Model II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9.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9.031, p<.001). Model II보다는 1.0%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변인 중 분노조절(β =-.282, p<.001), 자신감(β =-.205, p<.05), 낙관적 태도(β =-.177, p<.05), 학력(β =-.108, p<.05), 가정의 경제적 수준(β =-.088, p<.05) 순으로 더 많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무요원이 분노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자신감이 적을수록, 낙관적 태도를 적게 보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과잉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β	β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연령	-.003	.000	-.012	-.010
	복무 분야	-.006	-.043	-.048	-.049
	복무기간	.015	.008	.090	.059
	학력	-.173	-.033	-.108**	-.050
	경제적 수준	.025	-.080	-.088**	-.105
자아 분화	인지 대 정서		-.299***		-.154*
	자아 통합		.092*		.085*
	가족 투사		-.160**		-.043
	정서적 단절		-.006		.025
자아 탄력성	자신감			-.205*	-.165
	대인관계 효율성			.029	.023
	낙관적 태도			-.177*	-.109
	분노조절			-.282***	-.160*
Constant (상수)		3,227	5,803	5,692	5,927
R ²		.032	.281	.291	.332
ad R ²		.021	.264	.276	.309
F값		2.811*	16.288***	19.031***	14.614***

***p<.001, **p<.01, *p<.05

Model IV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과잉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33.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4.614, p<.001$). Model I 보다는 30.0%, Model II 보다는 5.1%, Model III 보다는 4.1%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유의한 변인은 가족퇴행($\beta=-.167, p<.01$), 분노조절($\beta=-.160, p<.05$), 인지 대 정서($\beta=-.154, p<.01$), 자아통합($\beta=.087, p<.05$) 순이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가족의 각자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존중해 주지 못하며, 갈등 상황 등에서 부정적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와 감정의 융합이 심하여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많이 지배를 당하고, 논쟁이 일어나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수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과잉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부적응 행동의 하위변인 중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Model I 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2%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811, p<.05$). Model II 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분화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2.4%를 차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2.021, p<.001$). 하위변인 중 가족퇴행($\beta=-.372, p<.001$), 인지 대 정서($\beta=-.292,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beta=-.107,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요원이 자주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목표 지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정서가 불안정하고, 생각보다는 감정에 휩쓸리는 등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소한 일로도 타인과 다투는 등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Model II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098, p<.001$). Model II보다 투입했을 때보다 설명력이 12.5% 감소하여 공격성은 자아분화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한 변인은 분노조절($\beta=-.265, p<.001$), 복무기간($\beta=.124, p<.01$)이었다. 이는 사회복지요원이 화가 나는 상황에

서 이를 잘 조절하지 못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복무기간이 길수록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Model IV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24.7%로 나타나, Model I 보다는 21.5%, Model II 보다는 2.3%, Model III보다 14.8%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637, p<.001$). 유의한 하위변인은 가족퇴행($\beta=-.405, p<.001$), 인지 대 정서($\beta=-.249, p<.001$), 분노조절($\beta=-.123, p<.05$), 가정의 경제적 수준($\beta=-.098, p<.05$) 순이었다. 즉 사회복지요원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 등 주위사람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객관적 사고를 하지 못해 감정에 휩쓸리고, 타인에 대해 수용과 존중을 보이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등 반항적이 되며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β	β
인구 사회학적 변인	연 령	-.003	-.039	-.064	-.035
	복무분야	-.006	-.017	-.012	-.019
	복무기간	.015	.074	.124*	.045
	학 령	-.173	.056	-.082	.029
	가정경제적 수준	.025	-.107*	-.017	-.098*
자아 분화	인지 대 정서		-.292***		-.249***
	자아통합		-.030		-.048
	가족투사		.047		-.022
	정서적 단절		-.014		-.044
	가족퇴행		-.372***		-.405***
자아 탄력성	자신감			-.017	.089
	대인관계 효율성			.059	.023
	낙관적 태도			-.070	.113
	분노조절			-.265***	-.123*
Constant(상수)		3,277	5,425	3,211	5,509
R ²		.032	.224	.099	.247
ad R ²		.021	.206	.080	.221
F값		2,811*	12,021***	5,098***	9,637***

*** $p<.001$, ** $p<.01$, * $p<.05$

4) 사회복지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강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의 하위변인 중 강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Model I 에서 조사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4.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3.895, p<.01) 유의한 변인은 없었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분화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4.349, p<.001). 변인 중에서 가족퇴행($\beta=-.331$, p<.001)인지 대 정서($\beta=-.285$,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beta=-.172$, p<.001)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사고와 감정을 잘 분리시키지 못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서적 충동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며, 가족 등 타인과 정서적으로 분리가 잘 안 되어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의존적이며, 가족구성원 간 동질성만을 추구하여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남을 의심하고 경쟁하려 하는 등 강박성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II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9.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9.706 p<.001). Model II보다 설명력이 4.2% 증가하여 강박성은 자아탄력성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변인 중 낙관적 태도($\beta=-.262$, p<.001), 분노조절($\beta=-.154$, p<.01)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일단 화가 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등 강박성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Model IV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강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은 34.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302, p<.001). Model I 보다는 29.8%, Model II 보다는 8.6%, Model III보다는 4.4%를 더 높였다. 강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퇴행($\beta=-.257$, p<.001), 낙관적 태도($\beta=-.217$, p<.01), 인지 대 정서($\beta=-.172$, p<.01), 가정의 경제적 수준($\beta=-.104$, p<.05), 복무기간($\beta=-.094$, p<.05)순이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가족퇴행과 인지 대 정서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조그마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등 강박성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8.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강박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β	β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연령	.003	.023	-.010	.008
	복무분야	.054	.014	.017	.008
	복무기간	-.150	-.172***	-.063	-.094*
	학력	-.107	.057	-.024	.059
	경제적 수준	.054	-.070	-.077	-.104*
자아분 화	인지 대 정서		-.285***		-.172**
	자아통합		-.045		-.042
	가족투사		-.065		.105
	정서적 단절		.024		.077
	가족 퇴행		-.331***		-.257***
자아탄 력성	자신감			-.182	-.161
	대인관계효율성			-.044	-.060
	낙관적 태도			-.262**	-.217**
	분노 조절			-.154**	-.074
Constant(상수)		3.469	7.174	6.319	7.304
R ²		.044	.256	.298	.342
ad R ²		.033	.239	.283	.320
F값		3.895**	14.349***	19.706***	15.302***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의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무 부적응행동 차이에 있어서, 학력이 대학학력자가 고졸이하보다 더 강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명숙[34]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그 원인을 본 연구에서 밝힐 수 없어 추후에 추가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복무분야별 부적응차이를 보이는데 환경안전분야의 복무요원이 교육문화분야 복무요원보다 더 많은 강박성 행동을 보인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안전분야가 지하철이나 재해·재난 현장 등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더 민감하고 완벽성을 요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업무유형에 따라서 스트레스나 긴장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예

측하게 하는 결과로서 업무에 따라서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볼 때 복무유형과 복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복무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위축의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저소득집단이 군 생활에서 역할, 관계, 외부,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모두 높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병사들이 군 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구승신[27]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를 토대로 보면 복무지도관이 사회복무요원들의 적응정도를 개인 심리적 부분뿐만 아니라 가족적 상황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부적응 하위영역별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하위변인별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가족퇴행 분화수준 순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을 동원할 수 있어 대인관계 적응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서적 단절 분화수준, 학력, 복무기간은 사회적 위축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단절이 실제 관계 단절이 아닌 심리적 거리감을 의미하기에 정서적 단절 분화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대인관계 효율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라는 연구[45]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 장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처분사유가 다양하여 구성원들이 신체적·사회문화적으로 동질감을 획득하기 어려워 오히려 고학력일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복무기간이 긴 경우는 복무중단이나 복무이탈 등의 이력이 있거나, 복무 초기와는 다르게 복무 후기에는 타인들과 잘 어울리면서 적응하려는 노력을 덜 해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으로 대인관계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낙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과잉행동에는 가족퇴행, 분노조절, 인지 대 정서 수준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쳐, 자아분화수준과 분노조절수준이 낮을수록 과잉행동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자아통합은 과잉행동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과잉행동으로 보기도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화가 날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적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격성과 강박적인 부적응 행동은 가족퇴행 및 인지 대 정서 분화수준, 분노조절,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퇴행 및 인지 대 정서 분화수준, 낙관적 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복무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퇴행이 과잉행동, 공격성, 강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김희숙[4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족퇴행 분화수준이 높을 때 의존적이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대인간 문제해결 등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족관계 등을 통하여 습득하고 유지해 온 문제해결 방식 및 대인관계 패턴 등을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변화시켜, 다양한 민원인과 복무기관 선후배·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기능적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복무 부적응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교육 등을 활용하여 자아분화 수준 향상 프로그램 개설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상담 또는 가족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에 대한 이해, 갈등관리,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수준은 복무 부적응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를 사회복무요원의 상담·관리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요원의 개인특성 변인 중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만을 선택하여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등 또 다른 개인심리 특성과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요원의 부적응 관련 연구에서 다각적으로 변인을 탐색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요원이 어려움을 느끼는 대인관계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관련 교육과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양교육 및 보수교육에 적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복무지도관이 사회복지요원을 상담 관리할 때 복무분야 및 개인특성에 따라 더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행동 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부적응 행동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 관리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마련하여, 복무지도관 교육 시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홍만희, *사회복지요원의 직무만족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 병무청, *2016 병무통계연보(1)*, pp.219-245, 2017.
- [3] <http://www.mma.go.kr>
- [4] 이주실, *육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 박은혁, 이용택,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Vol.24, No.4, pp.5-30, 2013.
- [6] 이수경, 감혜원, 한혜성, 백인혜, “대학생이 지각한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Vol.13, No.6, pp.2919-2941, 2012.
- [7] 나승천, *육군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그린캠프 비전캠프를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8] 오승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활용에 관한 인식 연구 :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9] 이진, *사회복지요원의 직무교육 성과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0] 최현수, 박경희, “사회복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시설(2009) & 보건복지행정기관(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11] 김수연,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2] M. Rutter,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 protective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47, pp.598-611, 1985.
- [13] N. Garmezy, *Reflection and commentary of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p. 1-1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14] 제석봉,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5] 재인용.
- [15] 권미영,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6] 박윤옥, *성인에착유형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분노표현의 관계*,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7] 조은경, 정혜정,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0, No.1, pp.1-16, 2002.
- [18] 최경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07.
- [19] 강성애, *대학생의 애착 및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0] 박기선, *사회복무요원의 윤리성 및 사회복지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1] 김명희, *사회복지담당 공익근무요원의 교육훈련전이수준과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직무정서성, 조직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2] 김선자, *대인서비스 리더로서의 초등교사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23] 박장환,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 분석*,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24] 이경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6, No.4, pp.29-39, 1999.
- [25] 김재술, *군복무 부적응자의 그린캠프교육대 참여에 관한 연구: A군단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 중심으로*,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6] 김성식, *군 병사들의 불안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7] 이현주, *군장병의 자아탄력성과 부대 적응도의 관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8] 구승신,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9] 정원철, 지향숙, “군 생활스트레스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9, pp.311-320, 2014.
- [30] 박영주, *병사의 군대적응변인과 사회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1] 엄덕희,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2] 강명숙,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스트레스 대처방 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33] 조순영, *병사들의 건강증진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4] 장경숙, *신세대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5] M. Bowa,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1978. [37] 재인용.
- [36] 김형진,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우울증상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7] 김종운, 이명희, “전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2, pp.506-516, 2014.
- [38] 이해순,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 pp.333-341, 2013.
- [39] 김해성, *공군 병사의 자기분화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친밀감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40] 윤선미, *자아분화수준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1] 이은희,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2] 김경욱, *대학생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3] 조혜정,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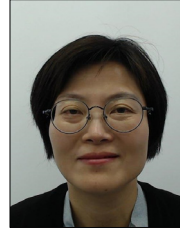
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4] 김희숙,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5] 김미선,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46] 정영제, *가정·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대인관계능력, 자아탄력성의 영향 구조분석*,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7] 최지현, *정서기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8] 이하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9] 전해선,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공격성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50] 이윤주 외,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자아탄력성 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Vol.5, No.4, pp.125-144, 2004.
- [51] 이선옥,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대학생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저 자 소 개

이 경 희(Kyung-hee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심리학과(문학사)
- 2007년 8월 :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상담심리학과(심리학석사)

<관심분야> : 상담심리, 가족상담

박 정 윤(Jung-yoone Park)

정회원



- 2004년 ~ 현재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상담심리, 가족상담